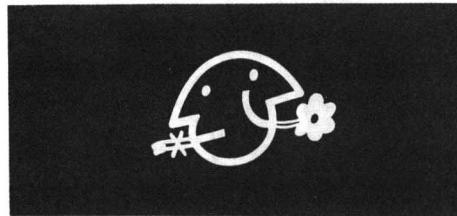


담배냐 건강이냐 ; 건강을 택하세요(3)



여성과 담배

Woman and Tobacco

(world Health forum Vol 11. No. 1 1993. 3-11에서)

편집실

WHO는 금연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마다 5월 31일을 세계금연의 날(World No-Tobacco Day)로 정하고 있다.

이글은 그 금연의 날 WHO 본부에서의 「여성과 담배」라는 원탁토론의 내용을 발췌 번역한 것이다. 토론자는 A, B, C씨
……로 약칭

A씨 : 여성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모범 또는 교육자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그들의 행태(行態)는 큰 의의가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성들이 담배 광고의 표적이 되어 가고 있다. 남성, 여성 가릴것 없이 전세계에서 흡연률을 줄이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이다.

B씨 : 몇년전만 해도 여성들이 담배와 관련해서 걱정했던 것은 폐암 뿐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담배가 여려모로 인체의 기관을 손상시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특히 여성에게는 생식상(生殖上)의 지장을 주고 아기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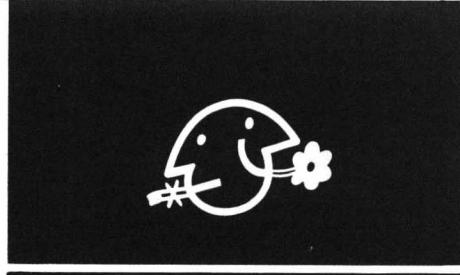
- 흡연은 여성을 빨리 늙게 하고 폐경(閉經)을 1~2년 앞당기게 하고 얼굴에 주름살을 더해 주고 흡연여성의 뼈는 폐경후에 허약해져 골절이 쉽게 일어나게 된다.
- 담배는 여성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기의 건강까지 해친다. 흡연하는 여성은 비흡연여성에 비해 임신이 덜 되며 또한 유산되기 쉽다. 흡연하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아기의 생존률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아기들은 허약하다.

C씨 : 고도로 공업화된 국가들에서는 다년간 금

연교육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담배제조업자들은 흡연의 위험성을 소비자들에게 경고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성들의 흡연은 감소되고 있는 반면 여성들 그리고 연소자들에서는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에서는 한심스럽게도 남성, 여성 모두에서 흡연률과 담배소모가 증가하고 있다.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높은 흡연률을 가진 나라들은 개도국들인데 이것은 담배산업이 여성시장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개도국에서 담배관련질병의 증가를 보게 되었다. 많은 나라에서 심혈관질환이 주된 사망원인이 되고 있으며 폐암이 없던 나라에서 폐암이 흔해져 가고 있다.

D씨 : 1950년대 초반에 몇몇 공업화국가에서는 유방암이 폐암의 7~8배나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변(異變)이 일어나서 미국에서는 폐암이 유방암을 앞서고 있다.

산업화세계 전체를 본다면 여성에서 폐암사망률은 매년 5%씩 증가하는데 남성에서는 불과 1% 밖에 증가하지 않고 있다. 사실 1980년 이래 여성에서의 폐암사망률은 40% 증가하였는데 남성에서는 3%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뚜렷한 사실은 여성 폐암사망률의 급격한 상승과 남성 폐암사망률의 하강이다.



A씨 : 유교(儒教)의 영향을 받은 나라에서는 여성의 흡연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흡연은 남성의 특권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 사회가 변해가면서 여성들도 흡연을

주장하며 전통적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 이런 사정은 공업화사회에서도 동일하다. 나는 자주 정부의 회의에 참석하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볼 수 있다.

“10대에 흡연을 시작한 젊은이는 약 40년후에는 담배의 해독으로 사망 할 위험이 높다.”

왜 여성들이 흡연하는가?

E씨 : 왜 여성흡연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무슨 힘으로 그들을 일찍 묘지로 보내고 있는가? 분명히 담배광고의 힘인 것 같다. 걱정이나 고민때문에 여성들은 담배를 더 피우는 경향이 있고 어떤 여성들은 담배가 체중을 줄인다고 믿기 때문에 흡연한다. 「날씬한 몸매」에 대한 여성의 욕구는 대단하므로 이것도 이유가 될수 있다.

F씨 : 개발도상국에서는 대부분의 늙은 여성들은 흡연을 하나 젊은 여성들이 흡연하는 것은 드물다. 그러나 선진국, 특히 북구(北歐)에서는 소년보다 소녀들이 더 어려서부터 흡연하고 있다.

일찍부터 시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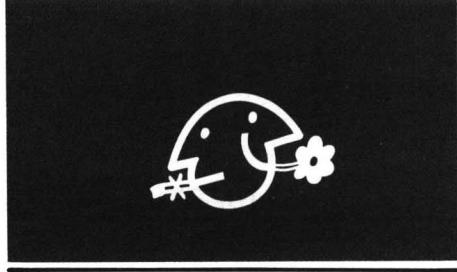
G씨 : 사람들로 하여금 담배의 해독을 일깨우는데 있어서의 큰 문제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긴 점이다. 연소자들이 10대에 담배를 시작했다고 치더라도 그들이 담배 때문에 죽는 것은 약 40년 후의 일이다. 흡연에 의한 신체에 대한 손상은 축적이 되므로 일찌기 흡연을 시작한 사람은 중년에 가서 위험에 놓이게 된다. 10대 흡연자들이 과거 10~15년간 증가했다는 것은 불길한 현상이 아닐수 없다. 20세 이하의 인구는 전세계에서 약 20억이 된다. 현재의 흡연 형태가 계속된다면 많은 젊은 아이들이 담배를 시작할 것인데 그들의 약

10%가 담배때문에 죽는다면 오늘날의 어린이중 2억이 피할수 있는 원인때문에 죽어야하는 이 모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들일수 있을 것인가?

H씨 : 우리들은 흡연이 거의 사춘기에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금연을 설득하려면 연소자들이 새로 시작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면 왜 그들이 담배를 피우는지 살펴보자. 사춘기는 하나의 전환기인데 젊은 아이들은 “담배는 성인과 관련이 있는 그 무엇이다”라고 느낀다. 그들은 모임에서 빈손에 무엇인가 있어야 직성이 풀리며 또 그렇게 하여야만 같은 그룹에의 소속감을 느낀다. 그들은 눈앞의 재미만 생각하고 먼 훗날에 나타날 건강상의 재액(災厄)은 생각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느낌의 「캡」을 메꾸어 주어야 한다.

F씨 : 만일 연소자들이 흡연습성에 물들지 않고 사춘기를 잘 통과했다면, 이는 건강교육의 결실이라고 볼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아이들이 건강상의 멘시지를 자기들 부모에게 전하는 수도 있다. 다행히도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들 부모들의 흡연을 걱정하고 있으며 금연을 설득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따라서 영향력은 항상 부모로부터 아이들에게 가는 것만이 아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G씨 : 대부분의 어린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자는 그들의 어머니이다. 영국에서의 좋은 예로는 부모들의 흡연습성이 바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어 어머니들이 담배를 피우면 그들의 아이들



도 담배를 피우게 되는 것이다.

I씨 : 아프리카에서의 주부는 가정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즉 그녀는 어머니이자, 농부(農婦)이자 모든 것의 중심이다. 그녀가 병에 걸리면 그 가정에는 파멸이 온다. 그녀의 주위에는 항상 심부름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담배도 사오고, 또 어머니의 담배에 불을 붙혀 첫 한모금을 빼 뒤 엄마에게 담배를 넘겨준다. 이리는 사이에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배우게 된다. 지금 담배산업이 산업화국가에서는 설 땅이 없게 되자 개도국에서 판매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성흡연자 : 무엇이 위험인자인가?

● 암

여성들사이에 오늘날처럼 흡연이 널리 퍼지지 않았을 때는 여성이란 심혈관질환과 폐암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남자와 똑같이 흡연하는 여성은 남성과 똑같이 죽을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여성사이에 호흡기계의 암이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낮은 수태율(受胎率)

흡연은 수태율을 저하시킨다. 한 조사에 의하면 비흡연 여성의 5%만이 수태에 실패하는데 비해 과도한 흡연여성의 11%는 같은 조사기간 중 수태하지 않았다. 흡연여성은 비흡연자에 비해 자궁외 임신의 위험이 두배나 높으며 자궁경부암의 위험도 높다. 그리고 폐경(閉經)은 2년 정도 빠르게 온다.

● 태아에 대한 손상

임신한 부인이 흡연할 때 그녀의 출산전의 태아도 같이 흡연하게 된다. 그녀는 일산화탄소와 니코틴을 태아의 혈중에 보내면서 산소의 공급

을 줄이고 심장박동을 증가시킨다. 그 결과 그 신생아의 체중은 평균보다 약 300g이 미달된다. 미국에서 조산(早產)의 약 11%, 출산시 체중미달의 14%는 임신기간중의 모성의 흡연에 기인한다. 영국에서의 한 조사에서는 모성이 흡연할 때 주산기(周產期) 사망을 약 28%가량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아이에 대한 위험

니코틴은 어머니의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전달된다. 흡연하는 어머니의 아기는 비흡연의 아기보다 더 빈번하게 얇게 된다. 만일 부모가 흡연을 하면 아기의 생후 일년동안 기관지염 또는 폐염이 될 위험도는 비흡연부모의 아기에 비해 2배나 높아진다.

● 심혈관질환, 골다공증

경구피임제를 사용하는 부인의 경우, 심장마비, 뇌출증, 다리의 정맥속에 혈액응고가 생길 위험도는 흡연자에 있어서 훨씬 높다. 흡연은 또한 골다공증의 위험인자이며 이 병은 폐경기 후의 부인들에서 골절(骨折)의 주요 원인이다.

● 조로(早老)

니코틴에 의한 혈관수축작용으로 흡연은 피부를 손상시키고 또 산소공급의 감소를 가져와 얼굴의 주름살을 늘려 조로를 초래한다.

● 흡연하는 여성의 수는

많은 개도국에서는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공공장소에서는 남성에 비해 적은 수의 여성이 담배를 피운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대충 2~10%의 여성이, 40~60%의 남성이 흡연한다. 이와 반대로 선진국에서는 20~40%의 여성(특히 젊은 세대), 30~50%의 남성이 흡연한다. ♠